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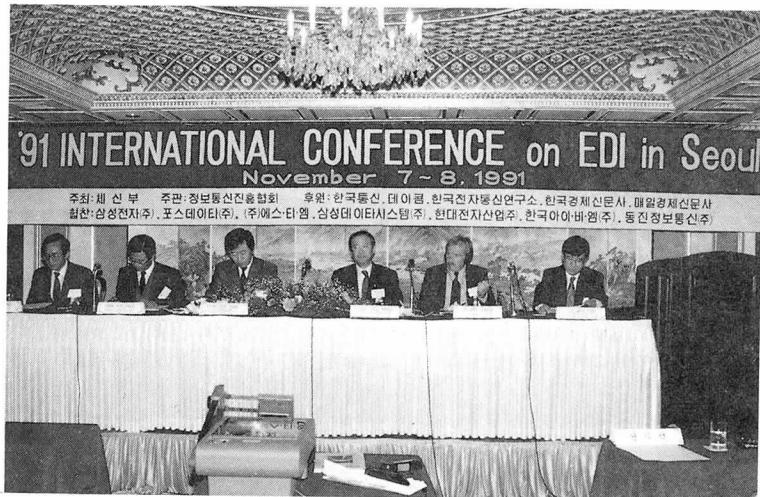
## '9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I

11월 7·8일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



협회는 이달 7·8일 양일간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EDI 도입사례와 국제동향 등을 소개하는 대규모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EDI 시장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 호주, 유럽 등 각국의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관의 EDI 관계자 8백여명이 대거 참석,  
최근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EDI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 연사들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본다.

..... 편집자 註



## 비지네스 관점에서 본 EDI

Marshall A. Spence (캐나다 ED협의회 회장)

캐나다의 경우는 지난 6년간 EDI 이용률이 매년 거의 1백%씩 증가돼 왔다.

현재는 매일 1백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이 EDI를 통해 전달, 처리되고 있는데, '92년 말에는 EDI 이용이 현재의 3배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EDI 구현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ED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측면보다 관리적인 차원이 성공을 좌우하므로 EDI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EDI를 산업전반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확고한 지원 역시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상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남은 것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 두산그룹의 정보화 전략과 EDI

김천사 (두산종합기술원 이사)

두산그룹은 본래 시스템통합(SI) 관점에서 그룹정보통신망을 구성하여 각 계열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이를 이용한 정보교환이 자연스럽게 EDI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ED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현안과제로는 첫째, 기술여건이 아니라 합리적인 거래관행과 사회적 질서가 중요하므로 현존 거래질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등 새로운 거래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둘째, 고객의 의식변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맞춰 거래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매우 크지만 당장 현안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므로 EDI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EDI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돼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에 EDI 업무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되어 있는 업무를 변경하거나 정착되어 있는 처리절차를 개편해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EDI를 정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거래표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중심업체의 일방적인 표준 설정보다는 관련사들(제조업체-도매점) 간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EDI의 법적 보안체제 확립

Ian Walden (영국 Tarlo Lyons 변호사)

전통적인 상행위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보안체제 즉, 문서에 서명날인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므로 EDI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과 확장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EDI의 여러가지 기능을 통해 법률이나 일반관행이 요구하는 행위보다도 더 상위의 시큐리티가 가능함을 사용자가 인식하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각각의 EDI 표준들은 발신과 수신처를 명기함과 동시에 암호 Field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메세지들은 Interchange Header나 Trailer에 의하여 정보가 제어되도록 고안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법률적인 보안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법적인 절차를 위하여 EDI 사용자들 서로 간에는 “Interchange agreement”, “Communication agreement”, “Trading partner agreement” 등 상호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를 위하여 여러 관련기관들이 이미 규칙이나 권고사항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사용자들 간의 합의시 참조할 수 있다.

## 유저 입장에서 본 EDI

Colin Spinks (미국 GEIS사 수석고문)

유저 입장에서 정의하자면 EDI는 인간의 개입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한 상태에서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상호간 정보나 메세지, 파일등을 일정한 표준화규칙에 의해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DI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내의 전체적인 의지를 구하고, ▼EDI의 최종목표를 설정하며, ▼모든부분이 참여케 유도하고, ▼프로젝트 추진 전담요원을 배정하며, ▼EDI 표준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을 확실히 파악하며, ▼일정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DI 구현은 EDI Tool을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고 전사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계획하에 잘 훈련된 요원들로 하여금 추진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

## 뉴질랜드 관세청의 EDI와 무역촉진

David Ray (뉴질랜드 관세청 매니저)

뉴질랜드 관세청에서는 무역촉진을 위한 도구로서 EDI를 채택, 활용중에 있는데, 이의 최종목표는 비용절감과 생산성 및 고객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 두고 있다.

그 실례로서 뉴질랜드에서는 무역관련 서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일 2백만불에 달하였으나 EDI를 통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관세시스템에 EDI를 도입함으로써 운송처리가 단순해졌으며, 업계의 자금회전도 원활해지는 효과를 보았다.

향후 뉴질랜드 관세청은 CEDI \* FIT 1(A)이라는 응용 EDI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아태각료회의(APEC)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상행위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보안체제 즉, 문서에 서명날인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EDI의 여러가지 기능을 통해 법률이나 일반관행이 요구하는 행위보다도 더 상위의 시큐리티가 가능함을 사용자가 인식하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 개방형시스템 상위계층에서의 EDI 보안체제 구축

김동규 (아주대학교 전신학과 교수)

EDI의 궁극적 목표는 종이없는 전자적문서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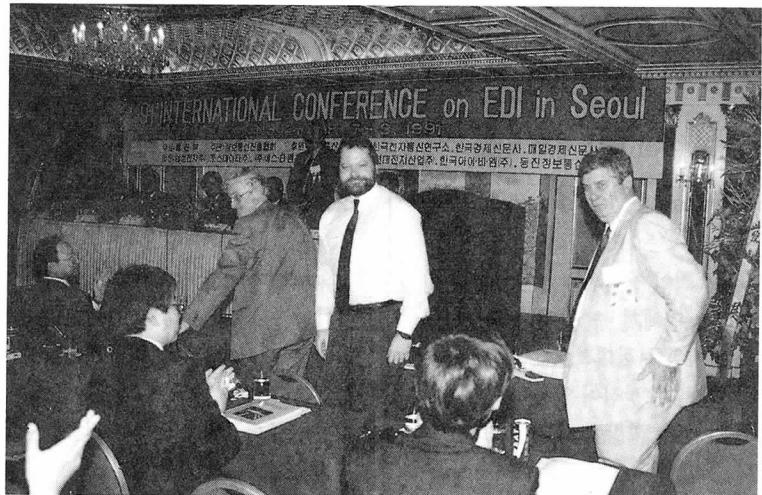
그러나 이를 구현하는 데는 여리 가지 비기술적인 요건의 충족과 아울러 배후기술의 활성화등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나 많다.

EDI와 관련해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슈중의 하나가 사용자가 전자적문서거래를 위해 EDI시스템을 이용할 때, 예민한 정보를 꺼리낌 없이 입력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확신의 문제이다.

결국 시큐리티 즉, 보안문제는 EDI 구현과 확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의 해결여부가 EDI 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EDI와 관련해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큐리티 서비스는 ▼정보 단위별 순서 유지, ▼비밀성 보호, ▼정보의 조작방지, ▼출처 확인, ▼수신처 확인등 크게 5가지 형태로 집약할 수 있다.

EDI시스템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며, 동작환경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광범위한 거리영역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분야에 따라 EDI 어



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서로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갖고 중계를 거쳐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일반적인 정보통신 환경과는 크다란 차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EDI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큐리티 제품체계를 개발할 수 있으며, 그것을 EDI 사용자들이 선택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EDI 확산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부담없이 EDI 네트워크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통신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며, 이러한 보안체제 구축은 공통의 보안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표준으로 정하고, 모두가 이 표준에 따라 시큐리티 제품을 개발, 보안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I

Christopher Brunet (프랑스 GS이터미네이트)

EDI는 서로 다른 기업간 정보전달을 위해 발달된 수단이므로 이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컴퓨터와 통신기술 및 자료형태들을 적절한 형태로 통합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화와 통신망 및 시스템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EDI 구현을 위해서는 최종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품질높은 서비스로 귀착되도록 하는데 근간을 둬야 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 EDI발전의 주요 관건

Micheal Baker (호주 EDI연구협의회 회장)

현재 호주내 주요 관공서나 업체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이 구축·운영중에 있는데, EDI를 이용한 거래요구의 증가와 EDI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기대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호주에서 EDI를 이용하는 대기업 체 수는 많은 편이 아니며,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EDI가 점차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EDI를 도입,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중소기업이 EDI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기기 및 장비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 ▼높은 회선비용 요금, ▼모든 이용의 일방통행적인 흐름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이한 인터프리테이션과 상이한 포맷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들은 EDIFACT와 같은 표준을 이용하여 교환해야 한다.

한국 역시 무역국으로서 많은 국가들과 EDI를 통해 무역을 하고 있는데, 국제표준을 이용하여 EDI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 유럽 금융분야에서의 EDI

Donald Fergus (국제정보교환협회 회장)

지난 십수년에 걸쳐 국제교역량은 급속히 증가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복잡다양해졌다.

금융분야에서의 EDI는 국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SWIFT가 있는데, 이를 이용함으로써 ▼입·출금시 발생하는 지연시간의 단축, ▼예금주의 예금잔고조회, ▼예금주의 비밀보장, ▼국가별 은행간의 자금결제, ▼무역시 상대교역국의 신용평가정보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 EDI 도입사례

나 준 (롯데제과 상무이사)

롯데제과는 건과류와 빙과류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네트워크망, 즉 ON-LINE, RES, 파일전송, 전용선등을 이용하여 왔으나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 개발과 대량생산에 따른 판매관리의 어려움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EDI를 도입하게 되었다.

EDI 도입을 계기로 마감시차, 회선장애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거래처관리 및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The Role of Third Party Vendor

김대규 (데이콤 상무이사)

거래교환에는 비밀전송과 Third Party를 이용한 두가지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직접전송시에는 통신비용 증가, 통신정합문제, 통신거리 및 지역의 한계성, 망관리의 어려움, 신뢰성 및 보안대책 미비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Third Party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Third Party는 ▼직접전송의 문제점 해결, ▼EDI 표준 실시, ▼EDI 경험과 지식 제공, ▼EDI 구현지원, ▼통신거리와 지역 제한의 해소, ▼네트워크의 경제적인 유지·관리, ▼자료의 신뢰도와 보안에 대한 책임, ▼토탈솔루션 제공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 Third Party는 VAN기능(번화, Moil Dux 서비스 통신등)과 부가기능(사용자 교육, S/W 제공, 컨설팅, 토탈솔루션 제공, EDI프로그램 관리등)등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앞으로 ED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Network Vendor, S/W, 교육 및 자문등 부문별로 EDI Vendor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국제표준, 업계표준, 국제표준등 표준체계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